# 9월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일시 및 장소 : 2022.9.28.(화) 오후 3시, 12층 대회의실
참석 위원 : 권혁남 위원장, 박찬재 부위원장, 문해주, 정의식,
정경모, 김희중 6인(유환익, 김세한, 천경숙 위원 서면제출)
회사 참석 인원 : 보도본부장, 시청자센터장, 심의실장

## 1. 다음 회의 일정

- 10월 일정 : 10월 25일(화) 오후 4시

■ 주요 내용

▲ 권혁남 위원장

- 성, 데이트 폭력, 스토킹 범죄는 선정적이기 보다는 드라이하게 보도해야, 인하대 성폭력 사건 등 성범죄 보도시 일부 언론에서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제목과 내용들을 다루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성범죄나 데이트 폭력, 스토킹 범죄 피해자의 개인적 신상과 사생활 영역이 노출되는 경우가 일어나기도 한다. 일부 언론은 시청자나 독자들의 주목을 끌기 위해 의도적으로 선정적인 보도를 하기도 한다. 대부분은 언론의 부주의로 인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끼치는 보도를 하는 경우가 많다. 성, 데이트 폭력, 스토킹 범죄 등과 관련된 취재 및 보도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취재기자들을 수시로 일깨워주어야 한다. 아울러 데스크 역할도 강화되어야 한다. 그래서 성, 데이트 폭력, 스토킹 범죄 보도는 선정적이거나 흥미위주여서는 안되고, 철저히 드라이하게 보도하도록 하여 보도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또 다른 피해를 주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피해자들이 그런 피해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공권력이 어떻게 해야되는가 이런 얘기 차원에서 국가가 나서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말씀하신 대로 성폭력이나 스토킹 범죄 대처에 있어서는 국가적 공권이 중요하다는 말씀에 100% 동감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보도함에 있어서 선정적인 보도, 그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이런 것들이 없도록 주의를 해야 한다는 말씀에도 공감을 합니다. 선정적이고 2차 가해를 일으킬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조금 더 우리가 주의 깊게 처리할 필요가 있고 가이드라인이라기보다는 기본적인 취재 윤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자들과 데스크들이 그런 부분들 잘 잡아내서 교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찬재 부위원장

- <전세사기 보도 관련> 지난 8월 16일부터 약 1주일간 7차례에 걸쳐 최근 급속한 집값 하락으로 전국 곳곳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 등 경제적

취약 계층에서 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피해가 더욱 커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는 내용으로 단순보도에 그치지 않고 전세 사기의 주요대상, 전세 사기 유형 등을 심층적이고 지속적인 보도를 이어감으로써 시청자의 입장에서 매우 유익하고 경각심을 일깨우는 좋은 보도였습니다. 8.16 <아파트 전체가 '깡통전세'...보증금만 23억 피해> 단독보도와 <"미래까지 저당"...전세사기, 청년층엔 '직격탄'> 보도를 통해 인천 아파트 전세 사기 실태 및 전세 사기의 주요 타깃은 신혼부부, 2030 청년층으로 집값이 본격 하락기에 접어들면서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하지는 않을지 우려하는 청년들의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어 전세 사기 피해가 우려되거나 피해를 봤을 경우 법률 상담과 지원 등의 사회적 지원책도 뒤따라야 한다는 내용으로 전세 사기의 실태 및 대책 마련에 대한 보도이며, 8.17 <전세사기 조직화·지능화..."범정부 통합대응 필요"> 8.18 <단독, 청년 전월세 대출 범죄 표적..."은행도 뚫려"> 보도에서는 건축주, 중개인, 임대인 등이 조직적인 범행을 벌이는 '무자본·갭투자' 사기 유형과 비대면 대출 심사를 악용해 수 억대의 전세 대출금을 가로챈 사례를 보도하여 전세 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보도였습니다. 특히, 8.19 <서민 울리는 전세사기 기승...은행까지 뚫려> 보도에서는 현장 취재기자가 직접 스튜디오에 출연하여 보도되지 않은 내용을 현장감 있게 보도하여 현실을 더욱더 느끼게 하여 좋았습니다.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전세 사기는 신혼부부, 청년층에서 주로 발생 되며 특히, 이들은 전세금 대부분을 대출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전세 사기는 이들에게 우리사회에 대한 상실감과 함께 크나큰 빚더미를 짊어지게 된다는 점에서 더욱 더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신혼부부, 청년층들이 부동산정보가 부족하고 잘 모르는 점을 악용하여 전세 사기를 많이 치는데 이에 언론에서 보도를 통해 시청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느끼게 함으로써 매우 좋은 보도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9.2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해 정부가 계약 전 집주인에 대한 정보(국세체납, 여러 가지 담보제공 등)를 더 많이 세입자에게 제공하고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집주인이 집을 팔거나 추가 대출을 못 받게 하며 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변제금도 더 높이고 단속과 처벌도 강화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았으나 시장에서는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실제로 도울 방법은 별로 안 보인다는 등 충분하지 않다는 반응이 있는 만큼 언론에서도 앞으로 지속적이고 심층적인 보도를 이어주기 바랍니다.

- <09.12 [뉴스초점] '뜨거운 감자' 서울 쓰레기 소각장...갈등 해결 방안은> 서울시 새 쓰레기 소각장 후보지(마포구 상암동) 선정에 있어 주민들의 반발과 갈등이 커짐에 따라 후보지 선정의 배경 및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임삼진 한국환경조사평가원 원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보도하여 좋았습니다. 신규소각장이 필요한 배경, 소각장 후보지 선정방법, 주민 반발의 이유, 문제점 해결을 위한 부분이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알기 쉽게 설명하여 좋았으며 특히, 서울시가 신규 소각장 선정과정에서 부족했던 점에 대하여 "과거의 낡은 행정방식을 고집했다. 5개 최종후보지가 어디였는지 아직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부지선정위원회의 회의록, 참여자 등도 알 수 없으며 처음에는 28개 항목도 공개하지 않다가 기자나 시민들의 압박이 거세지자 떠밀리듯 공개했다."라고 인터뷰를 하여 선정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투명한 행정절차, 상세한 정보공개와 무엇보다도 처음 단계에서부터 주민들과 협의하고 소통하고 공론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인터뷰에 매우 공감하며 이러한 시설이 세워지면 몇십년 또는 백년이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주민들에개 미치는 경제적 사회적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론화 절차 과정의 투명성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됩니다. 언론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보도를 이어가 주길 바랍니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칭찬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저희 사회부에서 젊은 기자들이 이슈를 그때그때 선정해서 집중 보도를 잘 하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문제도 그런 젊은 기자들의 노력에 의해서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쓰레기 소각장 문제는 진행형인 사건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가급적이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 문해주 위원

- 이번 달(8.18~9.21)에는 국내 과학기술 관련 뉴스가 전 달에 비해 매우 빈도가 적었습니다. 이는 성격상 과학기술 관련 기사를 만들어 보도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번 달에는 누리호와 다누리호 발사 및 허준이 교수와 같은 대형 이슈 및 성과가 없었던 때문이었다고 이해합니다. 다만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는 과학기술에 대해 평상시에도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취재와 보도를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만 미국이 주도하는 유인 달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의 첫 번째 미션 수행 관련, 8월 말과 9월 초에 걸쳐 많은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는 작년에 우리나라가 미국이 주도하는 아르테미스 협정에 가입(2021.5.24.)하고, 금년 8월 5일 달탐사선 다누리호 발사에 성공한 이후 이루어지는 미국 주도 달탐사 프로젝트이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중에서 [뉴스메이커](8.29)에서 '무네킹 캄포스'를 주요인물로 내세워 설명해준 점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또한 [그래픽뉴스](8.29)에서 아르테미스(SNS: Space Launch System)에 대해 도표와 이미지, 그래픽 등 시각적인 효과를 활용하여 알기 쉽게 설명한 점이 좋았습니다.
- 특정 뉴스 시간에 수어통역을 해주는 것이 매우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가능하다면 메인 뉴스 시간대에 해주는 것이 좋겠고, 이용 편의를 위해 시간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수어통역사의 경우 손이나 얼굴표정이 눈에 잘 띄어야 하기 때문에 통상 검정색 옷을 입는다고 알고 있는데, 색상이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는 점(치마 검정색, 블라우스 회색)이 눈에 띄었습니다. 다만 수어통역사의 표정이 매우 편안하고 밝아 보여 시청하기에 좋았습니다.
- '아르테미스' 관련 보도를 시청하면서 약간 아쉬웠던 것은 (1) 9월 9일 이후 달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에 대한 추가 보도가 없었다는 점(* '이후 한 차례 더 연기(9.27 발사 예정)'된 것으로 알고 있음, 실제 보도했는데 인지 못했을 수도 있음) (2) 다누리와 아르테미스의 비행 일정이 크게 다른 점에 대한 비교 설명 (3) 작년에 가입한 '아르테미스 협정'과 최근 추진 중에 있는 아르테미스 발사와의 관계 등에 대해 시청자들이 알기 쉽게 과학적으로 설명해주면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아르테미스 관련 말씀해 주신 거는 저희가 관련 보도를 할 때 충분히 참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수어통역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수어 통역은 평일에 정오 뉴스 그 다음에 오후 6시 뉴스에 두 차례 하고 주말에는 오후 1시 뉴스 한 차례 합니다. 거의 모든 뉴스에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비용의 문제가 있습니다. 확대하는 문제는 재정 여력을 봐가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언제 수어통역을 해주는지 시청자들을 위해서 안내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 편성표의 일정이 나와 있다고 하는데 편성표를 시청자들이 찾아서 보기가 쉽지 않은 측면도 있고요. 하단 스크롤에 수어 통역을 몇 시 몇시 한다

이런 거를 알려주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정의식 위원

- 8/21 맛있는 우리말 임신부, 임산부에 대한 흔히 쓰이는 혼돈스러운 어휘에 대한 설명이 좋아보였습니다. 칩4와 팹4에 대한 설명이 좀더 자세히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 8/28~29일,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경찰의 공안직화, 복수직급제를 시행하겠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공안직화, 복수직급제가 뭔지, 경찰에 어떤 이득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저를포함 잘모르는 시청자들에게 그 뜻과 장·단점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연합뉴스TV 스페셜, 반려견, 반려묘등 천만시대(1500만이라고도 함)에 맞춰 반려견들에 대한 실상, 유기견에 대한 실태 등 비교적 자세한 보도가 있어서 보기 좋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생명 존중 정신을 통해 사람과 동물들이 잘 어울려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9/3일 미니다큐 아름다운 사람들, 착한 공부방에 대한 취재 및 보도에서 다문화 학생과 부모들의 한글 교육 program 개발 등을 통해 쉽게 공부할 수 있는 콘텐츠, 즉 쉽게 게임을 하듯 재미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보도가 좋았고, 앞으로는 중·고등학생들의 학교 생활 적응과정( 따돌림은 없는지, 학습과정에서 문제점과 아쉬운 점 등) 등에 대한 취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보도를 통해 한국 학생들과 다문화 학생들 사이의 간격을 좁혀지는 것같아 좋았고, 또한 과거 학생으로 참여했다가 이젠 선생으로 되물림하는 것을 보니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다문화 가정에 대한 취재 및 보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9/7일 시각 장애인과 문화해설사와 같이하는 체험(경복궁)을 통해 그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 또한 더불어 살아가는가는 모습과, 그분들의 상상력과 희망, 꿈 들에 대한 내용 등이 좋았습니다, 보도 말미에 앞으로는 청각장애인 등 확대하겠다는 내용대로 다음에도 이에 대한 추가 보도가 꼭 있었으면 좋았습니다.
- 요즘 태풍이 자주 한반도를 거쳐 가거나 스쳐 지나가는 소식을 접하며, 태풍의 세기를 나타내는 초속이 자주 등장하는데 (가끔 시속으로 표현도 함), 초속은 몸으로 쉽게 체감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초속 x 3600을 하면서 계산하기도 어렵고, 혹시 초속 뒤에 (km/시속) 시속도 같이 표기해 줬으면 더 와닿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예를들면 30 m/s 보다는 108 km/h 가 더 와닿을 것 같습니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 칩4나 팹4 같은 생소할 수 있는 용어 당연히 풀어서 붙여주는 게 친절한 보도겠죠. 단신처리할 때도 간단한 설명을 그 용어 앞에 붙이면 되는 거니까요. 예를 칩4 같은 경우는 단신에서 미국 주도 반도체 글로벌 협력체라고 붙이고, 리포트나 대담의 경우는 칩4 얘기해주고 간단하게 한두 줄 설명 붙이는 것이야 어렵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공안직, 복수직급제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 반려동물 얘기해 주셨는데 연합뉴스TV 스페셜이든지, 저희 리포트든지, 뉴스 프리즘이든지 반려동물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삶 이런 것들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적절한 시기에 방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다문화 가정도 마찬가지로 더 좋은 사례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 초속하고 시속 문제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초속하면 잘 와닿지가 않고 시속 아무래도 와닿는 부분이어서 기상팀에게 이 부분을 시청자들이 좀 더 쉽게 알 수 있는 방안으로 개선하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 정경모 위원

미술도 K-컬처 열풍.. 한국, 아시아 문화의 맹주로, 2022년 키아프(KIAF)· 프리즈 서울의 성과와 의미, 〔관련보도〕아시아 최대 미술장터 선다...키아프·프리즈 공동 개막(2022.08.25.) [출근길 인터뷰] 아시아 최대 미술장터, 프리즈·키아프 동시 개막(2022.09.02.) 아시아 최대 규모 아트페어 개막 "기대와 우려" (2022.09.03.) 아트페어 '프리즈·키아프' 서울서 동시 개막(2022.09.04.) 국내 최대 미술품 장터 '키아프' 개막...관람객 북적(2022.09.04.) [세로뉴스] 미술에도 한류가?...아시아 맹주 노리는 프리즈 서울 (2022.09.08.) 바야흐로 K-컬처의 전성시대가 도래한 느낌이다. 올 한해 한국 문화예술에 대한 전세계적인 관심과 열기는 실로 엄청나다. 먼저 대중예술계를 보면 먼저 대중음악 부문에서 방탄소년단과 에이핑크 등 많은 뮤지션들이 빌보드 차트과 유튜브 조회수, 음원 수익, 공연 수익 등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있으며, 그래미상이나 아메리카 뮤직어워드 등 세계 유수의 시상식을 석권하고 있다. 영화부문도 영화 '기생충'과 '미나리'의 미국 아카데미상 수상에 이어, 올해 칸 영화제에서는 박찬욱 감독이 감독상을, 송강호 배우가 남우주연상을 수상하여 오랜 시간 영화계에서 쌓아올린 노력과 성과를 드디어 인정받게 되었다. 가장 최근에는 OTT부문에서 드라마시리즈 '오징어 게임'이 TV부문의 최고권위의 상인 미국 에미상 시상식에서 감독상과 남우주연상 등 무려 6개 부문의 상을 휩쓰는 기염을 토했다. 한편 순수예술 분야의 성공도 눈부시다. 클래식음악계에서는 이미 전 세계의 대부분 콩쿠르에서 한국의 젊은 음악가들이 수상자로 이름을 올린지 오래 되었으며, 특히 올해는 바이올린과 첼로 부문에서 양인모, 최하영이 1등의 영예를 안은데 이어 최근 미국 밴크라이번 피아노 콩쿠르에서 약관 십팔세의 임윤찬이 대상을 수상하며 혜성과 같이 등장했다. 문학부문에서도 정보라, 박상영 작가의 작품이 영국의 '맨부커 인터내셔널 상' 최종 심사작에 선정되었고 아동문학 부문에서도 이수지 작가가 아동문학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안데르센 상'을 수상하는 등 그 위상이 나날이 올라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제 한국 미술계도 새로운 비상을 준비하고 있다. 그 시작은 올해 9월에 서울에서 열린 '2022년 키아프·프리즈 서울 아트페어'로 기록될 듯하다. 키아프는 한국화랑협회가 주최하는 대표하는 국제적인 아트페어로 올해 21회를 맞이하였다. 올해는 국내 대표 화랑을 비롯해 17개국 160여개 갤러리가 참여하였다. 한편 프리즈는 2003년 영국에서 시작돼 세계 3대 아트페어로 발돋움했으며, 뉴욕과 LA를 거쳐 이번에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서울에서 열렸다. 국내 대표 아트페어 키아프가 올해 처음 프리즈와 공동 개최를 결정한 것으로 올 9월에 서울엔 아시아 최대 미술시장이 서게 된 것이다. 이번 2022년 키아프·프리즈 서울은 많은 관심과 열기 속에 큰 성공을 거두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관객 수 뿐만 아니라 미술품 거래량이나 판매금액 등도 예상치를 훨씬 상회할 것이라고 한다. 미술계에서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한국 미술계가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다시없는 좋은 기회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사실 이번 키아프·프리즈 아트페어는 단순한 아트페어가 아니다. 그동안 아시아 아트마켓의 주도권은 홍콩에 있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잦은 봉쇄와 중국의 대 홍콩정책(하나의 중국)으로 인해 세계의 관심이 한국에 쏠리고 있다. 아시아 미술시장 1번지였던

홍콩의 위상이 추락하면서 서울이 새로운 거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번 공동개최는 중요한 기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아트페어를 통해서 싱가포르나 도쿄에 앞서서 서울이 시작을 하게 된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는 것이다. 또한, 지금 현재 세계 굴지의 미술관의 디렉터, 슈퍼 컬렉터들, 갤러리스트, 비평가들이 한국을 찾아오고 그들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 한국의 유망한 작가들이 세계무대에 설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물론 향후로 세계적인 강자들과의 경쟁은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이를 통해서 한국 미술의 시스템이 변화되고 작품의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 또한 크다. 이제 K아트, K-미술도 문화 강국으로 나가는 길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때인 것이다. 연합뉴스TV는 이번 2022년 키아프·프리즈 서울 관련보도를 꾸준히 다루면서 그 의의과 전망 및 향후 과제도 다양하게 제시하는 등 보도의 내용과 깊이에서 크게 돋보였다고 높이 평가한다. 앞으로 순수예술 분야에도 꾸준한 관심과 전문성을 갖고 보도해주기를 기대하고 응원한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아무래도 저희 방송이나 신문이나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언론들이 문화를 다룰 때 말씀하신 대로 대중문화 쪽에 아무래도 비중이 더 크게 다루고 순수 문화예술 쪽은 좀 비중을 덜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청자들의 보편적인 관심이 아무래도 대중 문화예술에 많이 가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영화나 드라마 같은 대중문화에 관심이 일반적으로 많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또 시청률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다만, 언론이 시청자들을 단순히 따라가는 기능만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익적인 차원에서 계도 기능도 있는 거니까 순수든 대중이든 다양한 문화 분야를 발전시키고 진흥한다는 차원에서 순수 예술 분야에 있어서도 조금 어려운 면이 있긴 하지만 시청자들이 좀 알기 쉽게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순수예술인 K-미술이 눈부신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점은 대중예술을 중심으로 발전해온 K-컬처에 상당한 탄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프리즘에서도 이 점 주시하면서 추가로 K-미술의 성과를 다룰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겠습니다.

▲ 김희중 위원

- 신당역 역무원 피살 사건관련 재발방지와 피해자 보호 촉구 뉴스 돋보여, 9.19일자 현장의 재구성, 짙어지는 '계획 범죄' 정황...또 막지 못한 스토킹 살해편에서는 사건 전부터 피해자를 쫓은 가해자의 동선을 추적해 우발적 범죄가 아닌 '계획 범죄' 정황을 시청자들에게 고발하고, 무엇보다 사전에 범죄를 막을 수 있는 가해자에 대한 인신구속기회가 3번이나 있었음에도 놓쳐버린 사안을 하나하나 지적하고, 서울교통공사의 허술한 정보접근 관리까지 우리 사회가 가진 허점들을 차분하게 짚어 주며 이번 신당역 역무원 피살 사건은 스토킹 범죄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임을 시청자들에게 제시하였음. 또한 연합뉴스TV에서는 9.18일자 후속 뉴스에서는 스토킹 범죄가 계획적인 보복 살인을 낳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가해자의 접근 차단 대책과 피해자 보호 중심의 적극적인 분리 조치가 필요하다는 뉴스를 편성해 전달한 것은 시의성 측면에서 바람직했음.
- BTS 병역특례 논란관련, 전문가 통해 시청자 이해 도와, 9.19일자 이슈+에서는 국회 국방위의 BTS 병역특례 여론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병역특례 대상 편입과 병역특례제도에 대한 문제점 등을 전문가가 스튜디오에 나와 설명해 줌으로써 시청자가 이해하기 쉽게 접근해 돋였음. 이날 앵커는 모두 9개의 질문을 전문가에게 했는데 △ 대중문화예술인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하는 병역법 개정안에 대한 찬성의견이 많은 것의 의

미 △ 20대 남성 찬성의견 △ 다른 여론조사시에는 BTS 병특 반대의견 많다는 것의 의미 △ 병역법상 대중문화 예술인이 병특에서 빠진 이유 △ BTS가 부와 명예를 모두 얻고 있는 상황에서 병역특례까지 줘야하는지 △ 임윤찬 군이 병특을 받은 기준과 대중문화예술인의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 △ BTS 병역특례 정치권과 정부의 입장차가 너무 크다. 해결 방법은 △ 병역면제 규정 폐지 주장에 대한 입장 등 질문 모두가 시청자 입장에선 궁금했던 사안들이었음. 이 밖에도 BTS 병역특례관련 뉴스로 9.20일자 이기식 병무청장 인터뷰 기사, 같은 날 '영상구성' 국방위 BTS 병역특례 여론조사 결과, 9.18일 국방위 BTS 병역특례 여론조사 결과, 9.16일 이종섭 국방장관 인터뷰 등 다양한 시각에서 접했다는 점도 국민들의 이해를 돕는데 기여했을 것으로 보여짐.

▲ 추승호 보도본부장

- 스토킹 문제는 요즘에만 일어난 문제는 아니겠죠. 말씀하신 대로 흉포화하는 부분이 있어서 더 주목을 받고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좋은 말씀 저희가 잘했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스토킹 범죄를 다룰 때 현상을 다루는 데 그치는 경우가 많아요. 최근에 이런 이런 사건들이 있었다...현상을 다루는 것도 심각성을 알려준다는 차원에서는 좋지만 범죄를 어떻게 막을 수 있고 또 이 범죄가 벌어졌을 때 피해자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대책 위주로 좀 호흡이 긴 보도도 할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뉴스프리즘이나 스페셜 쪽에서 스토킹에 대한 대책을 집중해서 다루는 보도를 검토해보겠습니다.
- 뉴스 현장의 이슈 플러스는 이전에 사건 이슈였고 얼마전 개편을 하면서 사건 이외에 다른 이슈들, 이를테면 문화 이슈도 있고 스포츠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과학도 있고... 좀 넓게 다루는 범위를 넓혔습니다. 그 일환으로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 특례 문제도 다뤘던 것입니다.

▲ 유환익 위원(서면제출)

-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대책 제안 필요, 지난 9월18일 방송되었던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아무도 몰랐던 비극, 복지 사각지대와 빚의 굴레"에서는 수원 세모녀 사건을 중심으로 복지사각지대 현황과 되풀이 되는 원인, 정부대책 현황 등을 상세하게 다루었음. 송파세모녀 사건 이후 위기 가족을 발굴하기 위한 다양한 시스템 개발이 이루어져 왔으나 비극이 되풀이 되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를 법이나 정책이 예단하지 못하는 사례들, 특히 수원세모녀 사건에서처럼 주소지가 불명확한 경우 발굴자체가 어렵다는 사실을 지적했으며 복잡한 기초생활보장 신청절차, 높은 수준의 기초생활보장 기준 등을 지적하고 있어서 충분히 공감했음. 복지시스템의 문제점에 국한하지 않고 숨어살아야 하는 근본적 원인으로 빚독촉의 문제 및 빈곤의 문제로 확산한 것은 시청자 이해의 폭을 넓혔으며 심층분석 프로그램으로써 매우 적절했다고 판단됨, 복지사각지대 현황 및 원인 등에 대해서는 상당히 상세하게 다루어져서 매우 적절했다고 판단되나 해소를 위한 대책 제안에는 상당히 소극적으로 다루어졌다고 판단됨.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스템 개선은 단기적인 처방도 있겠지만 시스템 전반적 개선을 위한 장기적 개선 사항도 있기 때문에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임. 그러나 동 방송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하여 여당과 야당간 복지 예산 논쟁을 집중부각시켜 정치적 판단의 문제로 인식시킬 오해의 소지가 있었음. 특히 금년도 예산안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외면한다는 야당의 주장을 비중있게 다루고 있고 여당의 입장은 보도되지 않고 있어서 예산안에 대한 균형적 시각도 다소 미흡하게 다루어진 측면도 있음, 뉴스프리즘이 심층적 분석 및 대안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인만큼 다양한 전문가 인터뷰, 연구자료 등을 통해 대안제시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음. 예를들면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상 신청절차 개선방안, 기준의 개선방안, 발굴시스템 개선으로 첨단기술 활용방안, 복지제도의 근본적 개선방향, 해외 복지제도와의 비교 등 대책에 대한 제안을 했으면 시청자들에게 더욱 유익했을 것으로 사료됨

▲ 추승호 보도본부장

- 뉴스프리즘에서 주요 이슈 가운데 심층적으로 보도할 만한 이슈들을 짚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검토 해보겠습니다.

▲ 김세한 위원(서면제출)

- <[단독] 31살 전주환 신상공개...피해자 주소지 4차례 방문> 기사 제목 아쉬워, 이번 달에는 지난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습니다. 그런데 9월 19일 보도된 <[단독] 31살 전주환 신상공개...피해자 주소지 4차례 방문> 기사는 보도 내용 가운데 어떤 부분이 연합뉴스TV가 처음 보도하는 내용인지가 불분명해 아쉬웠습니다. 기사 제목으로 봤을 때는 '신당역 살인 사건 피의자인 전주환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경찰이 결정했다'라든지 혹은 '전주환의 신상이 공개됐다'는 내용, 아니면 세 점 뒤에 붙은 '전주환이 피해자 주소지를 4차례나 방문했다'는 3개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이 처음 보도하는 내용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런데 경찰이 전주환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는 뉴스나, 공개된 인물의 정체가 전주환이라는 뉴스는 특정 언론사에서 단독으로 기사를 쓰지 않았고 대다수 언론사에서 [속보] 형태로 비슷한 시간에 첫 기사가 나간 점에 비춰볼 때, 경찰에서 공식적으로 풀을 한 내용을 갖고 기자들이 기사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 위 기사에서 정작 단독보도 한 내용은 전주환이 범행 전에 피해자를 찾아간 것이 한 번이 아니라 네 번이었다는 점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기사 제목을 지금처럼 잡기보다는 <신상공개 된 전주환 피해자 주소지 4차례 방문>이나 신상공개 내용은 빼고 <전주환 피해자 주소지 4차례나 방문>, 이런 식으로 잡는 게 독자들에게 혼동을 주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사 본문을 확인해보면 역시 신상공개에 관한 얘기가 앞부분에 나오는데 독자들 입장에서는 전주환의 신상이 공개됐다는 사실을 단독 보도한 건지 오해할 소지가 있어 보였습니다.
- 스토킹범죄 관련 심층보도 아쉬워, 앞서 밝혔듯이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로 부각되면서 더불어 '스토킹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커졌습니다. 때문에 각 언론사에서는 스토킹범죄와 관련된 전문가 인터뷰, 좌담회 등 여러 형태의 심층보도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연합뉴스TV에서는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해결해줄 이 같은 심층보도가 다소 부족했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최근 연합뉴스TV에서 보도된 '스토킹범죄' 관련 스트레이트 기사 외 보도로는 9월 19일 보도된 <스토킹범죄 엄정대응 예고...무엇 고쳐야하나?>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사는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하채은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등 3명의 전문가로부터 각 2~3줄 정도의 멘트를 받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이틀 뒤인 9월 16일 보도된 <[이슈+] 시행 1년 앞둔 '스토킹처벌법'...처벌 강화 취지 무색> 기사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위 기사는 우석대 경찰학과 교수와 손정혜 변호사 등 2명의 패널을 스튜디오로 초대해 진행자가 스토킹처벌법의 내용과 스토킹범죄에 대한 대응 방안 등 10개의 질문을 던지고 대답을 듣는 방식의 보도였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1999년 처음 발의됐지만 22년 만인 지난해 4월 겨우

법이 제정돼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됐고,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다른 범죄에 비해 낮아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다는 점 등 현행법의 문제점이나 수사 현장에서의 실무적인 문제점 등을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대담 형식이나 인터뷰 형식으로 짚어주는 보도가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단독을 붙이게 된 팩트는 피해자 주소지를 4차례 방문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단독이라고 붙인다면, 단독을 한 팩트를 먼저 써주거나 그 팩트만 써주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처리한 대로 한다면, 신상공개한 것이 단독처럼 잘못 읽혀지니까요. 기자가 잘못 썼다면, 데스크들이 수정했어야 하는데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스토킹 범죄와 관련한 대담은 저희가 9월에 여러차례 진행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겠습니다.

▲ 천경숙 위원(서면제출)
-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곳곳서 규제완화 '꿈틀" 2022-08-29, 서울시가 각급 학교들의 개학에 맞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했고 필요하면 견인 조치도 강행하겠다고는 했지만 야간 등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를 탄력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늘고 있다는 내용이 방송이 되었습니다. 등교시간인 오전 8시가 넘은 시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차금지 팻말 아래 떡하니 도로에 불법 주차된 차량들이 가득합니다. 단속에 나서 과태료를 부과해 봐도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인근 상가와 상가의 물품 배달과 택배차량, 일부 학부모들의 차량을 이용한 등·하교 등으로 불법 주·정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어린이들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법이 개정됐지만 시행 1년도 지나지 않아 규제 완화 움직임은 커지고 있습니다.
- 부산과 창원 일부 지역은 오후 8시부터 오전 8시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일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대전시는 지난달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제한속도를 30km/h에서 50km/h로 높여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시간을 늘려주는 자치구도 있습니다. 광주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시간을 5분에서 15분 늘리기로 했고, 주말과 휴일에는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단속을 강화해 어린이 보호를 위한 법의 취지를 퇴색시켜선 안된다는 움직임과 동시에 주정차 민원을 무시할 수 없는 자치구들의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취지와 다르게 민원인들의 여론으로 법 개정 1년만에 규제의 완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현실이 매우 착잡합니다. 이번 연합뉴스TV의 보도를 통해 우리의 편리성 때문에 개정된 법을 손쉽게 완화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뉴스의 전반적인 내용과 그래픽을 활용하여 시청자 앞장에서 이해하기 쉬웠고 중간에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추승호 보도본부장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일부 안전 속도 상향 등 다른 규정은 실제 완화된 상태입니다. 특히 어린이 안전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사회적 주의를 환기시켜가겠습니다.